

데스크 시국



채희중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

도쿄 2020년 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 공포에 쫓겨가지 겹친 데다 무관중 경기로 열려 흥행에 실패한 최악의 올림픽으로 꼽힌다. 하지만 매 경기 온 몸을 불사른 투혼이 있었다. 모두가 패배를 점했던 타키와의 경기에서 기적을 일군 여자 배구팀이 대표적이다. 결승전에서 패하고도 주저 없이 금메달을 딴 상대에게 엄지를 세워 보인 태권도 이다빈 선수의 매너도 우리를 흐뭇하게 했다.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벅찬 감동의 연속이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멀었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신장이 크지 않아 불리하고, 힘이 달려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편견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눈물샘을 자극하고 새삼 가슴을 뛰게 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과학적 전력 분석을 단순한 편견으로 일축해 버리는, 혼이 담긴 경기에 우리는 열광한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웃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버나드 쇼가 초청한 예술 비평가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존중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신기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었다고 여긴다. ... 편견은 무지의 결과이며, 인간의 편견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편견을 버린다는 것

은펜칼럼



한국환
경영학 박사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지지율 변화에 따른 치열한 대권 경쟁 또한 큰 이슈다. 이맘때면 국민은 대선 출마자의 능력과 비전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시의적절한 시대정신을 선점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는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해양 이후 정치사를 돌아보면, 나라를 잃고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광복 직후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그 후 60년대는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여러

기고



김순호
구례군수

유례없는 수해가 섬진강변의 도시들을 휩쓸지 1년이 지났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용담댐 등 댐 하류 지역 17개 시군에서 1만 명의 주민들이 1조 원이 넘는 흉수 피해를 입었다. 구례에서는 전 세대의 10%에 달하는 가구가 침수되었고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만 1807억 원에 달한다.

섬진강변의 평화로운 도시들은 전쟁터처럼 참혹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뒤에 남은 것은 생활·농업·축산·공업 폐기물이 섞인 진흙탕과 쓰레기로 변해 버린 생활의 타전이었다.

2만 6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 군민들의 노력으로 수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다. 그러나 수해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막막함뿐이었다. 재난지원금, 수재의연금, 재해구호기금 등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급되었으나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출발선부터 빛이라는 족쇄를 차고 걸어가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생계는 수마와 함께 덮

편견은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은 그것이 언제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다"면서 편견의 해로움을 지적했다. 편견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는지, 상대에게 얼마나 큰 폭력으로 작용하는지 보여 주는 일화도 있다.

'버나드 쇼'는 영국의 예술 비평가들 중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망을 싫어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 비평가들은 미켈란젤로의 데생은 탁월하지만 로망의 데생은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이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만찬이 끝날 즈음, 그는 아주 귀한 작품을 보여 주겠다고 그림 하나를 펼쳐 보이더니 "여러분, 로망의 데생입니다"라고 말했다. 일순 조용해진 장내에서 웅성거림과 함께 "구도가 이상한데" "뒤편이 너무 작품인가" 심지어 "저것도 그림이야?"라는 혹평과 비난이 쏟아졌다. 잠시 후 버나드 쇼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 작품은 로망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것입니다"라고 사과하자, 만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한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김은국의 소설 '순교자'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주의를 주제로 다루며 '도스토옙스키와 알베르 카뮈의 도덕적이며 심리적인 전통을 훌륭하게 이은 작품'이라는 뉴욕타임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소설은 6·25전쟁 때 북한의 목사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돼 이중 12명이 처형되고 2명만이 살아남은 얘기를 다루고 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총격으로 미쳐 버렸다. 다른 또 한 명의 생존자로, 유일하게 사건의 진실을 아는 신 목사는 자신이 살아남은 일은 '신의 개입'이라고 말할 뿐 침묵을 지킨다.

이 때문에 교회 신도들과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혼자만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상상과 편견으로 신 목사를 매도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나중에 밝혀졌다. 12명의 목사들은 목숨을 구걸하느라 신을 부인했으나 신 목사만이 당당히 하나님에 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

은 경제와 민생고 해결이 문제였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 부흥'이 주된 시대정신이었다.

그리고 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로 억압된 자유·인권·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주화'가 주된 정신이었다.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문민정부'를 큰 이슈로 내세워 승리했고, 19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후보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같은 정당의 장기 집권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수평적 정권 교체'를 주장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그동안의 낡은 틀 청산을 위해 대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대외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크게 주창하며 승리했으며,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제도 개편 등의 성과로 '경제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선전하며 선진 일류 국가를 위한 '747' 정책을 공약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북자국가'를 내세워 승리하여 집권했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승리했지만 그동안 공정과 고 정의했는지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정책과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을 일찍이 주장하고 '공정과 성장',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역강부양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섬진강 수해 1년, 국가의 책무를 되돌아보아야

했던 진흙탕 속에 잠겨 있다. 구례에서만 48가구가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내고 있으며, 빛은 이자와 함께 매일매일 무거워지고 있다.

그 고통은 분노와 함께 더해졌다. 주민들은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해 왔다. 섬진강댐이 최대 방류량인 1800톤을 방류하겠다고 7분 전에 통보 받은 주민들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게다가 섬진강댐이 예년보다 6m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보조여수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국회의 국정 감사와 전문가들을 통해 전달됐다.

정부는 거듭 공명정대한 원인 조사를 약속해 왔다. 수재민들은 조사 결과만을 바라보며 1년을 기다려왔다. 최근 수해 원인 조사용역을 맡은 수지원화회가 작년 수해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발표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보고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다면 배상이 지연되고 그 고통은 수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격정하며 추서 전 100%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댐 관리 부실이 자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수지원화회는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및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을 꼽았다.

국가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인민군은 12명을 가짜 목사라며 처형했는데,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은 신 목사만 진짜 목사로 인정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가 두 번째 메달을 딴 직후, 한 네티즌이 그의 짧은 머리 스타일을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 논란이 일었다. 정작 안산 선수는 '그냥 편해서 짧은 머리를 했대'는데도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안산 선수를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몰며 '금메달을 박탈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개인 취향에 여성 혐오라는 화살을 쏘 폭력이라 국가 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 선수가 짧은 머리를 한 이유

20여 년 전 사회부 사건기자 시절에 가졌던 편견 하나가 있다. 매일 경찰서 취재를 한 탓인지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대부분 전과자이거나 폭력배,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됐다. 이러한 편견은 십수 년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섯 명의 여성 응시자 중 두 명의 직원을 뽑아야 했다. 한때 최종 합격한 두 명 중 한 사람은 손목에, 다른 한 사람은 목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문신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의 편견을 깨려고 노력 중이다.

편견은 쉽게 들어오지만 좀체 나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편견과 싸우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깨우쳐 줄 수도 없다. 편견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편견은 지금 버려도 늦지 않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와 혁신 성장'을 제시하며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 최저 기준을 정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시대정신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리의 현실은 국내적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사회·지역의 경제적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및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미·중 패권 다툼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려면 대선 후보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미래 통찰력은 물론 나라를 다스릴 확실한 비전과 통치 철학이 뒷받침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는 한 분야의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 여러 분야의 지식·경험을 두루 갖추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적합하다고 본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따라서 시대정신도 우리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설득과 공감으로 이끌어 냈으면 한다.

다도 1년을 버텨온 수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재민들의 입장에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은 전국 평균의 40% 수준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의 홍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댐 관리 운영 목적을 이수에서 치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섬진강댐은 관리 용량이 부족해 하류 지역 피해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크다. 이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서 더욱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하천에 대한 국가의 일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하천은 국토부가, 주요 지방하천은 광역지자체가 관리 주체이다. 서로 홍수 방어 기준이 최대 150년 빈도까지 차이가 나 취약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지원화회도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섬진강 수해는 기후변화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뼈아픈 상처를 입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이 이미 흘린 눈물은 닦아주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社說

광주의 미래 '인공지능 산업' 분산 안 된다

광주는 전국 유일의 정부 공인 '인공지능(AI) 중심 도시'이다. 그 출발은 지난 2019년 1월 광역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 때 광주시가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해 선정된 것이었다. 수조 원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래 신산업인 AI 육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연구개발,창업 지원,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관련 기업 100개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AI 산업 육성 정책이 뚜박의 복병을 만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내놓은 '지역거점 중심 AI 확산 계획'이 그것이다. 이는 AI 산업과 관련해 광주는 인프라, 총칭권은 연구개발, 강원권은 데이터활용, 수도권은 민간 주도 글로벌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AI 산업의 전국 분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계획의 철회를 요

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 갈 것 같아들 댄 국내 AI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당분간 광주에 집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되레 분산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에도 과기부의 300억 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사업이었음에도 수도권 중심 개발 논리에 밀려 경기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분산화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키워 온 광주의 AI 산업 기반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이용성 시장이 '코끼리가 크다고 두 마리로 나누면 모두 죽는다'며 항변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미래 신산업은 앞으로 지방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AI 산업 전국 분산화 계획을 철회하고 광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증 혐의 헬기조종사 '진실의 입' 열어야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은 끝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 씨는 그제 광주지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지만 뇌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전 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말 대답하지 않았다.

전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5월 단체를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오월단체는 이날 '민주주의 최대 수해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

표했다.

한편 전 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후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의 헬기조종사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당시 증언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명고사 등 여러 기록에는 분명히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나온다.

전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헬기 사격 여부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를 비롯해서 나머지 헬기 조종사들도 이제 거짓의 장막을 벗고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주 시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無等鼓

'상월정'(上月亭)은 담양 창평 월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아담한 4칸 한옥의 정자인데 원래는 '대자암'이란 암자였다. 고려시대 초기부터 언양 김씨 자제들이 공부하던 곳이었으나 오랜 기간 암자 터로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조선 세조 3년(1455년) 김자수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해 정자를 짓고 상월정이라 이름 지었다.

이후 김자수가 손자사위인 성종 이씨 이경에게, 이경은 사위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학봉 고인후에게 양도하면서 상월정은 조선 중기 무렵부터 창평 고씨가 관리하게 됐다. 고인후의 11세 손인 춘강 고정주

영학숙(英學塾)

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낙향해 이듬해 상월정에 공부방을 차리고 영학숙(英學塾)이라고 했다. 춘강은 고종 때 오종의 국립 도서관장 격인 '규장각 직각'을 지냈던 인물이다. 영학숙은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서울에서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선생을 모셔와 처음에는 집안사람들과 지인들을 가르쳤다. 춘강의 둘째아들 고광준을 비롯해서 사위인 인촌 김성수와 고하 송진우,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호

남은행 창립자인 현준호 등이 이곳에서 수학한 동문들이다. 영학숙은 호남 인재의 산실로 근현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대거 배출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한 이승기 박사, 국내에 야구를 처음 소개한 박석운 외교관도 이곳에서 공부했다.

영학숙은 1908년 창흥의숙으로 개편되면서 과학·수학·국어·체육 등 신학문 전반에 이르기까지 손자사위인 성종 이씨 이경에게, 이경은 사위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학봉 고인후에게 양도하면서 상월정은 조선 중기 무렵부터 창평 고씨가 관리하게 됐다. 고인후의 11세 손인 춘강 고정주는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창흥학교가 되었고 지금의 창평 초등학교로 이어졌다.

며칠 전 담양 영학숙과 정읍 영주정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렸다. 근현대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두 곳의 공통점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영학숙은 고려시대 이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공부방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교육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호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정월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